

# 일본경제리뷰 No.19\_07

## < Special Issue >

### 참의원 선거후 아베노믹스의 초점

#### Contents

<Special Issue> .....	2
I. 한일경제동향 .....	5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 ....	7
2. 경제정책 .....	11
3. 기업전략 .....	13
4. 산업기술 .....	18
III. KJCF&KJE News .....	21
IV. 이달의 추천자료 .....	22
V. 한일경제지표 .....	23



## < Special Issue >

### 참의원 선거후 아베노믹스의 초점 -소비자심리 위축, 금융완화 경색, 재정에 초점-

-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아베정부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위에서 새로운 레이와 시대에 국가건설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임
- 이에 아베총리는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재직노령연금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, 세계경제에 불투명감이 있으나 경기의 하강 리스크에는 주저 없이 기동적이고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함

#### □ 경기 하강 리스크에 초점

- 아베 정부의 앞으로 경제운영은 경기하강 리스크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
  - 소비세를 10%로 인상하기로 한 한편, 세계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으로 세율을 8%로 인상한 2014년에 비하면 소비자심리는 어두워지고 있으며 수출도 부진함
  -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, 2020년 동경올림픽 이후도 내다보고,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
- 아베 총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참의원 선거가 끝난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함
  - 지난 6월에 완성한 2019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서도 기동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주저 없이 실행하겠다고 명기했음
- 2014년 4월 세율을 8%로 인상했던 때와 비교하면, 현재 경기는 시원찮은 편임
  - 일본 내각부의 지수에 기초한 기계적인 경기판단은 5월분이 하락세 멈춤으로, 개선이라고 표현했던 2014년 초에 비하면 활기가 부족함
- 그 배경에는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감속임
  - 일본의 수출은 2019년 6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수준을 하회했음
  - 외수의 부진은 국내 경기 체감도를 낮추고 있는데, 2014년 증세를 실시하기 4개월 전인 2013년 12월보다도 상황이 나쁨

-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도 불투명한 요소가 많음
  - 2019년 10월 말에는 영국의 EU탈퇴 기한이 다가옴.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모름
  - 그런가 하면, 2020년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는데, 이제까지 경기를 지탱해온 건설투자는 개최 전에 끊기게 됨
- 증세가 이루어진 2014년도 실질 GDP는 전년도 대비 0.4% 감소로 마이너스성장에 빠졌음
-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앞으로는 경감세율의 도입과 무현금결제의 포인트 환원 등 두터운 대책을 내놓고 경기하강 방지에 부심하고 있음
- 그러나 내수, 외수에 대한 불안은 강한 편임
  - 경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, 전문가들로부터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임

#### □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금융정책에 비용을 고려, 추가완화에 신중

- 그러나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음. 아베노믹스를 견인해 온 금융완화에 경색감이 있기 때문임
- 이와 관련하여 크나큰 시련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인하임
  - 미국 연방준비이사회(FRB)는 2019년 7월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금리인하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
  - 미일 간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고압력이 걸려 일본의 수출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됨
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한 모멘텀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,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금융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
  - 그러나 기간 10년 이하의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권에 있음. 추가완화로 더욱 금리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이 압박받아 연금 등 폭넓은 자산의 운용도 어렵게 됨
  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IMF 강연에서 정책효과의 이점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정책을 운영해나겠다고 말함

- 이는 지속적인 추가완화에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과도한 저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 자세를 소극적으로 만든다고 강조, 일본은행으로서 추가 금융완화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시사함
- 바꾸어 말하면 정책면에서는 다양한 리스크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, 정책효과에의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나가겠다는 것임

#### □ 방재대책 강화, 논점으로 부상

- 금융완화의 여지가 한정되는 경우, 초점이 되는 것은 경제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임
-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미일 무역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농업관련 대책이 부상할 것임
  - 농지의 정비와 농촌의 방재강화 등의 예산 확충이 논점이 될 전망이다
- 한편, 일본정부는 2019년도 예산에서 소비세대책으로 프리미엄 상품권의 배포 등 약 2조엔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임
  - 그 중 국토강인화 대책으로도 1조 3천억엔 이상을 투입한다는 구상임
- 소비환기대책으로는 대충 필요한 정책들이 모아졌으나, 우선은 공공사업을 앞당긴다는 논의에 그치고 있어, 예산의 확충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함
-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재정출동을 반복하는 경제운영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음
  - 일본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증세대책은 이미 충분하며, 오히려 아베 정부는 강한 정치기반을 활용하여, 사회보장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음

#### □ 시사점

- 아베정부는 앞으로 경기하강 리스크에 기동적이고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만만치 않음
  -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엔고압력을 줄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인데, 이를 위해서는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하여 일본의 금리를 하락시켜야 함
  - 그럼에도 추가 금융완화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임
  - 또 금융완화가 한계에 직면하고 소비세 증세로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가 부진해지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재정이 출동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뒤따름

## I. 한일 경제 동향

### □ 對日 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 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  - 對日무역흑자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  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통상정책의 핵심임
-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.1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.2%로 2000년의 각각 11.9% 및 19.8%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수준임
  - 한편, 2018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도 4.2%로 2000년의 5.4%에 비하여 낮아진 수준임

### □ '19.6월 중 對日무역

- '19. 6월 對日무역적자는 1,570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이 확대
  - 對日수출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 것임
- 對日수출은 2,266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1.7%의 큰 폭 감소
  - 10대 對日수출품목에 산업기계 대신 기초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, 모든 품목의 對日수출이 감소
  - 석유화학제품의 對日수출 감소폭이 -23.3%로 가장 큼

- 對日수입은 3,836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4.3% 증가
  - 10대 對日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정밀기계의 對日수입증가폭이 25.8%로 가장 큼
  - 對日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對日수입감소폭이 -5.1%로 가장 큼

< 2019년 6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565	2.0	12.5	2,266	-12.1	-11.7	14,253	-6.3
對日수입	3,679	-16.8	-19.5	3,836	-13.8	4.3	24,308	-13.3
무역수지	-1,113	-41.7	-52.7	-1,570	-16.1	41.1	-10,055	-21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‘19. 2분기 일본인직접투자는 증가로 반전
  - ‘19. 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283백만 달러로, 전분기의 23.7% 감소에서 11.4% 증가로 반전
  - 이는 ‘19. 1분기 일본인투자가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추정됨
- 한편, 일본 측의 국제수지기준으로 본 ‘19. 5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87억 엔으로 전월대비 38.6% 증가로 반전, 이 역시 전월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추정됨
  - ‘19. 5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점하는 對韓직접투자 비율은 전월보다 0.3%포인트 상승한 0.8%

< 일본인직접투자 추이 >

		2017	2018	‘19 1분기	‘19 2분기	‘19.4월	‘19.5월
신고 기준	對韓 일본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1,862 (90.1)	1,301 (-30.1)	254 (-23.7)	283 (11.4)	-	-
	전체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22,970 (7.8)	26,901 (17.1)	3,174 (-58.8)	1,267 (-60.0)	-	-
국제수지기준	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(억 엔, %)	4,112 (18.8)	6,653 (61.8)	-	-	207 (-32.6)	287 (38.6)
	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(억 엔, %)	559,108 (-18.0)	643,235 (15.0)	-	-	42,311 (-30.5)	34,615 (-18.2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  
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## □ 인적교류

- '19. 6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1.4% 감소
  - '19. 6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82,476명으로 전월대비 1.4% 감소, 전년 동월비 20.1% 증가
- '14. 6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전월비 1.4% 증가
  - '19.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11,900명으로 1.4% 증가, 전년동월 대비 0.9% 증가

## II. 이달의 일본경제

## 1. 경기·무역 동향

## □ 경기, 악화에서 탈출

- 일본 내각부가 7월 5일 발표한 5월 경기동향지수에 의한 기초판단은 「하락세 정지」로 3~4월의 악화에서 탈출
  - 신차 판매의 호조로 자동차 관련 증산 등이 호재로 작용. 민간 경제기관들 사이에서는 미중마찰의 영향으로 부상한 일본국내 경기후퇴 우려가 가라앉았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나, 장래 불투명감은 강함
  - 5월의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(2015년=100)는 103.2로 전월보다 1.1포인트 상승, 기초판단은 악화로부터 상향 수정된 하락세 정지. 광공업생산과 생산재출하 등 5개 지표가 일치지수 상승에 기여
-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월례경제보고도 6월까지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음
  - 고용상황이 안정, GDP의 과반을 점하는 개인소비도 견조를 보이고 있고, 총무성이 7월 5일 발표한 가계조사에서 소비지출도 6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했음

- ‘19.5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5.0% 증가
  - 10일 연휴와 기온상승으로 여행비 지출과 에어컨 등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
- ‘19.5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기계수주액은 해외경제의 영향을 받기 쉬운 범용생산용 기계의 수주부진으로 전월대비 7.8% 감소
  - 이 중 제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전월대비 7.4% 감소,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수주는 9.0% 감소
  - 일본 내각부는 회복기미가 보인다는 기조판단을 유지
  - 「일본은행 단관(短観, 2019년 6월 조사)」에 의하면, 2019년도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2018년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   - 세계경제의 감속우려로 수출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고려한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나 일손부족에 따른 생력화 투자는 계속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
- ‘19.5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2.0% 상승, 2개월 연속 상승
  - 자동차와 전기·정보통신기계공업, 생산용기계공업 등이 상승
- ‘19.5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과 같은 2.4%
  - 완전실업자 수는 162만명으로 전월보다 6만명 감소한 가운데, 자발적인 이직이 7만명 감소
  - 유효구인배율은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0.01포인트 낮은 1.62배로, 일손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숙박업·음식서비스업과 운수업·우편업 등에서 신규 구인수가 증가
  -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생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
- ‘19. 6월의 수출수량은 전월대비 14.7% 증가
  -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수량증가폭이 전월대비 16.5%로 가장 큼
  - 그러나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의 동향과 중국경제의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

- ‘19.5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.8% 상승, 전월비로는 0.0% 상승
  -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전년 동월비 상승
  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## □ 무역수지 흑자로 반전

- ‘19. 6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5,895억 엔 흑자로 2개월 만에 흑자로 반전
 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3,917억 엔 적자에서 1,313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3,949억엔 흑자에서 6,699억엔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
  - 무역수지의 흑자 반전은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, 수입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
- ‘19.6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13.8% 증가한 6조 5,845억 엔
 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고, 철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, 원동기의 수출 증가폭이 16.3%로 가장 큼(지표 4)
 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, ASEAN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23.3%로 가장 큼(지표 5)
  -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2.8% 증가
- ‘19.6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1.8% 감소한 5조 9,950억 엔
  - 5대 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으며, 의약품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원유의 수입 감소폭이 -21.9%로 가장 큼(지표 6)
  -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의약품의 수입증가폭이 8.2%로 가장 큼
  - 주요 국가지역별 수입은 모든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EU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18.1%로 가장 큼
 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9.1% 감소(지표 7)

〈 2019년 6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〉

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출	5.8	-7.8	-13.4	6.6	-6.7	13.8	38.2	-4.7
수입	6.8	-1.5	3.0	6.0	-5.2	-11.8	39.1	-1.1
수지	-1.0	67.5	-	0.6	-19.0	-	-0.9	-

자료 : 재무성

- ‘19.6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08.1엔으로 전월대비 1.5% 엔고
  - 7월 들어서는 108엔대를 유지하다가 7월 18일에는 107엔 76전으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
  - 이는 닷케이 평균주가의 하락과 보조를 맞춘 엔 매입·달러 매도와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에 의한 것임
  -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,088엔으로 전월대비 1.1% 원저(엔고)
- ‘19.5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18.2% 감소한 3조 4,615억 엔
  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M&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
  - 일본의 대외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,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&A의 증가, 둘째,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셋째,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증가 등을 들 수 있음
 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8.6% 증가한 287억 엔
- ‘19.5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5.9% 감소한 1조 5,948억 엔, 전년동월대비로는 16% 감소
  - 미중 무역마찰로 對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, 무역수지가 6,509억엔 적자(국제수지 기준)를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임

## 2. 경제정책

### □ 2019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외국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다룬 2019년판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완성, 이에 입각한 대처방침을 결정한다고 발표
-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등 신규로 13건의 불공정 조치를 지적
  - 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안건을 열거, WTO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시정·철폐를 요구할 방침임
- 불공정무역보고서는 3부로 구성, 국제규범과 비정합적인 통상정책, WTO협정, 경제 제휴협정 등을 3가지 큰 테마로 다루고 있음
  - 외국정부에 대한 충고와 메시지로서 이용하는 외에, 일본의 산업계에 대한 주의환기 등 정보발신의 역할을 지님
- 2019년판에서는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, 필리핀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, 인도의 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을 새로운 안건으로 제시
  - 자국제일주의적인 정책이나 시장왜곡적인 조치에 대하여 WTO협정 등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을 꾀할 방침임
- 경제산업성은 신규 조치로,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WTO분쟁해결절차를 개시기로 함
- 경제산업성은 또 WTO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
  - 한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WTO가 용인한 판단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음
  - 이 외에 기존 조치에서는 2국간·다국간 협의에서의 해결을 위해, 중국의 알루미늄에 대한 보조금 및 베트남의 수입자동차제도 등을 열거함
- 또 예의주시가 필요한 신규 안건으로서는 2019년 3월에 제정된 중국의 외상투자법을 기재, WTO협정과의 정합성이 우려된다고 함

## < 시사점 >

-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
  - 지난해 11월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 바 있으며, 이에 한일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
- 또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개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것도 한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, 앞으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책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

## □ 「중소기업강인화법」에 의해 사업계속·신사업 지원

- 중소기업활동의 계속을 주안점으로 한 「중소기업강인화법」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
  - 동법은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고려하여, 중소기업들이 책정한 「사업계속력 강화계획」을 경제산업상이 인정하는 제도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서, 인정사업자에게 대하여 세제면 등에서 우대조치를 강구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임
  - 또 201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담은 「개인관 사업승계제도」를 원활히 운영하기 쉽게 하도록, 유류분의 민법특례조치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했음
- 동 법률의 정식명칭은 「중소기업활동의 계속에 도움이 되기 위한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」임
  - 동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, 세무사, 회계사 등 사외 고도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의 인정제도도 창설
  -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면, 세제 면에서 지원해줌
- 최근 수년간 지진이나 호우에 의한 자연재해가 빈발,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서플라이체인이 붕괴하는 위기에 직면했음
  - 또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일본정부는 동 강인화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지속과 사업승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

## < 시사점 >

- 이번 일본의 「중소기업강인화법」은 중소기업이 책정한 BCP(Business Continuity Planning; 사업계속계획)를 국가가 안정한다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
- 동법에 의한 사업계속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는 BCP로서의 측면과, 고령화 사회에서 후계자의 확보 등 경영의 승계로서 사업계속의 측면이 있음
- 특히 일본과 같이 많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, 국가가 중소기업의 BCP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제까지 없는 제도임

## 3. 기업전략

### □ 일본제품, 11개 품목에서 세계시장점유율 순위(일본경제신문 2019/7/8)

- 일본경제신문사가 실시한 2018년 주요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에 의하면, 74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서 순위가 바뀌었음
  - 시장점유율을 좌우한 것은 상위 기업이 사업을 집중시킨 발전형 대형 터빈과 HDD, 하위기업이 대형 M&A을 실시한 일반용 의약품 등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었음
- 발전용 대형 터빈은 미쓰비시히타치파원시스템즈(MHPS)가 45%의 시장점유율 점하여 최초로 순위에 올라섰음
  - 이산화탄소(CO2)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에 대한 악영향으로, 대형 터빈의 세계시장은 전년대비 15.7% 축소했으나, MHPS는 태국과 미국에서 대형수주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29포인트나 시장점유율을 높였음
- 한편, 2018년에 순위였던 미국 GE는 전력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했음
  - 품질 트러블의 영향에 더하여 채산성이 낮은 안전의 수주를 보류한 것도 시장점유율을 반감시켰음

- 2위인 독일 시멘스도 2019년 5월, 가스·전력 부문을 2020년 9월에 분리·상장시킬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, 2019년 이후 잔존자이익(殘存者利益; 과당경쟁 또는 축소경향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상대가 철수한 다음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)을 쟁취하는 구도가 강해질 전망이다
- 기억장치로서 서버와 PC에 내장되는 HDD는 미국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WD를 제치고 수위로 올라섬
  - 처리속도가 빠른 기억매체,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(SSD)의 대두로 HDD시장이 전년 대비 6.9% 감소한 가운데, WD가 PC 등의 HDD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
- 일반용 의약품은 2018년 2위였던 영국 글락슨스미스라인(GSK)가 동 2018년 1위였던 미국 존슨앤존슨(J&J)을 제치고 수위로 올라섬
  - 2018년 여름까지 스위스 노발티스로부터 일반용의약품의 합작사업을 매수하여 완전 자회사화 했음
  - 나아가, 2019년 중 미국 화이저와 일반용의약품사업을 통합할 방침이며, 수익성이 높은 의료용의약품에 집중된 경합타사로부터 일반용 의약품사업의 집중을 추진함
- 가상현실(VR)헤드셋은 2018년 수위였던 삼성전자가 시장점유율이 하락, 4위로 전락함
  - 스마트폰 갤럭시의 대상기종을 구입하면, 무료로 VR헤드셋을 입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종료함
- VR헤드셋 대응게임을 확충한 소니자회사인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(SIE), PC에 접속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신기종을 발매한 미국 페이스북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였음
- 세계시장이 전년비 34.5% 증가, 급속히 확대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8년에 2위였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 1위였던 아마존닷컴을 제치고 수위로 올라섬
  -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판 업무용소프트인 「오피스365」가 호조를 보임. 클라우드 서비스는 탑 5를 미국기업들이 독점함
- 한편, 일본기업들은 CMOS(상보성금속산화막반도체) 센서와 자동이륜 등 11개 품목에서 수위에 올라섬

- 정밀 및 자동차관련 등의 모노즈쿠리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나, 디지털 카메라 등 축소되고 있는 시장도 있어 전략전환이 불가피한 장면도 나타나고 있음
- CMOS센서 분야에서는 소니가 수위를 지키고 있음
  - 스마트폰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복안화·다안화가 진행되고 있어, 시장은 확대경향에 있음
  - 장래는 자동운전차에 탑재하는 센서의 수요도 예상되는데, 소니는 2019년 5월에 설비투자를 증액하기로 했으며, 2위인 한국 삼성전자도 공세를 펼치고 있음
- 자동이륜 분야에서는 혼다가 전체의 1/3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수위, 야마하 발동기도 3위를 기록함
  - 상위 5개사 중 나머지 3개사는 히로 등 인도기업들이 점하고 있음
- 11개 품목 중 성장시장은 CMOS, 자동이륜 외에 마이콘, 편광판 등 7개 품목에 이름
  - 그러나 두 자리대 성장은 전년대비 20% 증가한 리튬이온전지용 절연체뿐임
- 디지털카메라는 시장이 22% 감소. 상위 5개사를 캐논과 니콘 등 일본기업들이 점하였으나, 스마트폰과의 경합으로 판매대수는 감소하고 있음
  - 일본기업이 수위였던 축소시장에는 그 밖에 발전용대형터빈 등이 포함됨

### < 시사점 >

- 일본경제신문사의 조사결과에서 세계시장점유율을 좌우하는 키워드는 바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있음
  - 전문화된 유리한 사업영역에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,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택임
-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기존보다 훨씬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음

## □ 야스카와전기·파낙, 멈추지 않는 공장 실현(일본경제신문 2019/7/17)

-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2강인 야스카와(安川)전기와 파낙이 공장자동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잇따라 개발
  - 모든 모노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와 인공지능(AI)를 활용, 센서를 통하여 기기의 모터로부터 가동데이터를 입수, 고장 등 잘못된 점을 고정밀도로 예측하여 멈추지 않는 공장을 지원하고 있음
  - 하드뿐만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일체로 제공하는 사업모델로의 이행을 서둘러,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음
- 제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부족의 영향으로 로봇 등을 사용한 자동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
  - 그러나 로봇은 인간에 비하여 유연성이 낮은 외에, 프로그래밍작업 등의 부적합으로 설비가 멈추는 경우도 많음. 자동화를 추진한 결과, 도리어 설비정지의 빈도가 높아져버렸다는 새로운 문제도 부상하고 있음
- 야스카와전기(본사: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, <https://www.yaskawa.co.jp/>)와 파낙의 서비스는 이러한 자동화의 맹점을 보완. 야스카와전기가 최근 제공하기 시작한 가동감시 서비스는, 로봇이나 반송장치의 내부모터로부터 정보를 모음. 회전력 등 데이터를 백만분의 1초 단위로 수집함
  - 예를 들면 회전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, 과거 트러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, 앞으로 수일 내에 설비 가동률이 20%정도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함
- 고객은 데이터를 기초로 생산계획의 수정이나 부품교환 등 대응을 할 수 있음
  - 야스카와전기는 주력인 로봇과 모터의 부속 서비스로서 고객에 제안하고 있는데, 2021년도까지 1천개사에 대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나 하드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
  - 파낙(본사: 야마나시현 오시노무라, <https://www.fanuc.co.jp/>)은 IoT를 활용한 가동감시데이터를 일부 전개하고 있음 새로운 서비스는 AI에 의한 심층학습으로 예측의 정밀도가 보다 높아지는 이점이 있음

- 파낙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AI임. AI개발의 스타트업인 프리퍼드네트웍스와 협력하여, 모터의 가동데이터를 분석, 트러블의 발생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음
- 제조업의 가동감시서비스에 관해서는, IoT 활용이 진행되고 있음
  - 예를 들면 독일 지멘스사는 자사의 IoT시스템을 타사의 로봇과 공작기계를 포함한 세계 140만대 이상의 설비와 접속, 폭넓은 감시서비스를 하고 있음
- 한편, 가동감시는 뒤에 붙은 센서와 전기회로를 통하여, 전류나 진동 등의 움직임을 수집·분석하는 방법이 주류임. 트러블의 예측은 가까운 장래 정지할 것 같다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많음
- 이에 대하여 야스카와전기와 파낙은 설비의 기간부품인 모터로부터,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. 설비정지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, 원료효율 개선으로도 이어진다고 함
- 서비스의 대상은 자사제 설비가 중심으로, 지멘스 등에 비하여 범위는 좁아질 전망. 그러나 양사는 세계 로봇시장에서 각각 20%정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고객의 니즈는 높아질 것으로 보임
- 새로운 서비스에 착수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수요에 대한 위기감도 있음
  - 일본의 2018년 로봇 수주액은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. 양사 모두 2018년도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음
- 일본 로봇공업회에 의하면 2019년 로봇수주액은 전년대비 2.2% 감소, 7년만에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
  - 중국 메이커 등도 대두하는 가운데, 소프트 면에서의 서비스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수요를 환기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
- 앞으로는 하드와 소프트를 조합한 일체적인 종합력이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임

### < 시사점 >

- 야스카와전기, 파낙의 새로운 사업모델은 방식은 다르지만 로봇, AI등에 의한 생산 자동화의 맹점을 보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

- 그 대표적인 것이 설비정지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, 원료효율을 개선하는 것임
-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자동화기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필수재이자 보완재로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

#### 4. 산업기술

##### □ 반도체제조장치 재편, 망설이는 일본 업계(일본경제신문 2019/7/2)

- 반도체 제조장치 분야에서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(AMAT)가 7월 1일 구 히타치제작소 계열의 국제전기를 매수한다고 발표
  - 투자펀드로부터 22억달러로 전 주식을 취득. 차세대 통신규격 5G와 인공지능(AI) 분야에서 반도체수요가 확대되는데 맞추어, 장치메이커의 연구개발비도 급증하고 있음
  - 세계 대형 업체들이 재편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, 일본 SCREEN홀딩스가 매수를 단념하는 등 일본기업들에게는 망설임도 보여짐
- AMAT는 투자펀드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(KKR)로부터 국제전기의 전 주식을 취득, 1년 이내에 철차를 마친다는 구상임
  - 국제전기는 히타치국제전기로부터 2018년 6월에 분사하여 KKR산하에 들어가 있었음
-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에 수 나노(나노는 1/10억)미터의 미세한 전기회로를 그려 제조하는데, 회로가 되는 금속 박막을 형성하는 장치 등이 강점인 AMAT에게, 회로 주변의 절연막을 만드는 장치가 주력인 국제전기는 이상적인 파트너임
  - 기술개발과 영업면에서 그만큼 협력하는 장점이 큼
- AMAT는 10년 전에도 당시 국제전기의 친회사인 히타치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났음
  - 이번에 다시 움직인 것은 2018년 후반기에 들어서부터인데, 최대 라이벌은 일본의 SCREEN이었음

- 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한 일본정부의 의향도 작용했으나 SCREEN은 금액이 너무 높다고 매수를 포기했음
  - 일본정부계열 펀드인 INJ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안도 부상했으나 실현되지 못함
- AMAT의 적극적인 자세의 배경에는 5G나 AI에 의한 반도체의 고도화와 수요확대가 있음
  - 반도체 회로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장치의 고도화도 필요하여, 장치메이커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음
  - 실제로 AMAT의 2018년 10월기 연구개발비는 약 20억 달러로, IT버블로 장치수요가 컸던 2000년 10월기의 1.8배임. 일본 최대 업체인 동경일렉트론의 2019년 3월기의 개발비도 2001년 3월기의 2.2배인 1,139억엔임
- 고객인 반도체메이커의 집약이 진행된 것도 배경임
  -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, 대만의 대만적체전로제조(TSMC)의 과점도 진행되어, 장치메이커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나 장치가격의 인하압력이 강해짐
  - 장치 업체들도 집약이 이루어져 AMAT 등 대형 업체 4개사에서 시장의 70% 가까이를 점함
- AMAT와 동경일렉트로닉스는 2013년에 경영통합을 발표했으나, 실현되지 못한 경위도 있음
  - 세계시장점유율 25% 이상의 초대형 장치메이커가 되는 듯했으나, 미국의 사법부 등 각국의 독점금지법 당국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. 미국 대형 반도체업체들의 강한 반대도 있어 2015년 4월에 중단
- 일본의 장치 업체들 주도로 업계재편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대형 검사장치 업체인 어드반테스트가 미국 베리지를 약 900억엔으로 매수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감
  - 동경일렉트로닉스의 사장은 매수는 부정하지 않으나 기술적인 협업도 선택지라고 재편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임. 현재는 최대 1,500억엔의 자주주 매입을 발표하고 있음
- 일본의 장치메이커 업계에서는 과거 반도체의 회로패턴을 전사하는 노광장치분야에서 니콘과 캐논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, 기술개발에서 네덜란드 ASML에 크게 뒤짐

- 일본의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재편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존재감이 저하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임

### < 시사점 >

- 다른 산업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악화는 업계 재편에 영향을 미침
  - 반도체 장치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되면 단독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, M&A 등 재편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임
- 반도체 제조장치는 반도체 소재보다 대일의존도가 높아 對日수입대체를 가속화해야 하는 품목임

### □ 산업용 로봇시장, 2025년에 2.5배(일본경제신문 2019/7/3)

- 일본의 조사기업인 후지경제에 의하면,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제조업용 로봇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5년에 2018년 대비 2.5배가 증가한 2조 8,675억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
-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
  - 로봇을 도입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어, 공장자동화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
- 2018년 제조업용 로봇의 세계시장규모는 1조 1,268억엔
  - 미중무역마찰의 영향으로 로봇에 대한 설비투자가 저조하나, 시장 전체는 2017년에 비해 약 5% 확대됨
  - 2019년은 2018년에 비하여 10% 증가한 1조 2,410억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
- 로봇을 종류별로 보면, 인간과 같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간협조로봇의 수요가 증가했음
  - 2019년의 시장규모는 2018년에 비하여 약 30% 증가한 782억엔이 될 전망이다

- 세계적으로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, 인간에 대체한 노동력으로서의 활용이 진행될 전망
-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가진 로봇의 상용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함
-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자동차나 전자부품의 제조현장용 로봇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
  - 식품공장 등 많은 분야에서의 활용도 확대되어, 2025년에는 2018년에 비하여 약 7배인 4,11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

< 시사점 >

- 일손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로봇의 수요 증가는 고용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따름
- 그러나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고 인간협조로봇과 같은 노동력의 보완하는 로봇은 노동력의 자본장비율을 높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함

### Ⅲ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행사 결과

<p><b>“2019 일본취업상담회(J-Job)”</b></p> <p>일시 : 2019년 7월 17일(수) 09:30~18:00                  장소 :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                 하모니볼룸 B1                  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, 한일재단                  참가 : 일본기업 50사                  면접건수 : 270건</p>	
--	--

## IV. 이달의 추천자료

### 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2019년 경제재정백서』 일본 내각부, '19.7.24  
[https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9/index\\_pdf.html](https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9/index_pdf.html)
- 『에너지절약 기술전략 2016의 「중요기술」 을 개정』 경제산업성, '19.7.19  
<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07/20190718003/20190718003-1.pdf>
- 『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은 수출하기 쉬운가』 경제산업연구소, '19.7.18  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9e049.pdf>
- 『자동차업계 최신리포트 CASE사업의 글로벌전개와 과제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'19.7.18  
<https://www.nri.com/jp/knowledge/report/lst/2019/cc/mediaforum/forum277>
- 『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시스템에 관한 기초조사』 경제산업성, '19.7.13  
[https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H29FY/010243.pdf](https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10243.pdf)
- 『산업재편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자료』 경제산업성, '19.7.13  
[https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H29FY/010228.pdf](https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10228.pdf)
- 『對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관하여』 일본국제문제연구소, '19.7.13  
[http://www2.jiia.or.jp/RESR/column\\_page.php?id=362](http://www2.jiia.or.jp/RESR/column_page.php?id=362)
- 『하이브리드형 일본경제모델Q-JEM』 일본은행, '19.6.28  
[http://www.boj.or.jp/en/research/wps\\_rev/wps\\_2019/data/wp19e07.pdf](http://www.boj.or.jp/en/research/wps_rev/wps_2019/data/wp19e07.pdf)
- 『2019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'19.6.27  
<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06/20190626003/20190626003.html>

## V. 한일경제지표

### 1) 2019년 6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565	2.0	12.5	2,266	-12.1	-11.7	14,254	-6.3
1	철강제품	367	-0.7	12.2	320	-0.7	-12.8	2,101	1.9
2	광물성연료	361	23.0	-6.0	301	-26.1	-16.6	2,133	-9.1
3	정밀화학제품	192	7.0	16.3	164	-5.0	-14.6	1,047	5.5
4	전자부품	177	7.5	40.5	151	-11.0	-14.7	867	-7.1
5	석유화학제품	159	-21.9	25.2	122	-39.5	-23.3	785	-29.3
6	산업용전자제품	114	3.1	21.2	111	-15.3	-2.6	657	-13.4
7	수송기계	117	-1.4	25.8	110	-8.4	-6.0	640	-10.9
8	농산물	99	1.2	0.0	95	-1.4	-4.0	582	4.0
9	기계요소공구금형	103	19.8	28.8	92	5.8	-10.7	545	4.5
10	기초산업기계	87	13.0	33.8	82	-3.7	-5.7	484	9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# 2) 2019년 6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3,679	-16.8	-19.5	3,836	-13.8	4.3	24,309	-13.3
1	철강제품	562	0.0	-7.3	558	-8.4	-0.7	3,333	-4.9
2	전자부품	481	6.8	-8.9	459	-13.9	-4.6	2,971	-6.4
3	정밀화학제품	303	-20.3	-33.0	360	-5.0	18.8	2,275	-3.6
4	석유화학제품	332	5.7	-11.8	315	26.7	-5.1	1,989	0.7
5	정밀기계	240	-62.9	-42.7	302	-40.4	25.8	2,063	-50.5
6	산업용전자제품	227	-15.3	-4.3	227	-22.3	0.0	1,382	-16.4
7	기초산업기계	175	-17.5	-16.7	192	-22.4	9.7	1,166	-18.9
8	플라스틱제품	160	-12.8	-19.2	186	2.7	16.3	1,076	-2.8
9	수송기계	190	-7.4	-33.3	185	-7.6	-2.6	1,365	1.9
10	산업기계	161	-7.5	-18.7	172	-17.1	6.8	1,124	3.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2018	2018		2019					
		3/4	4/4	1/4	2/4	4월	5월	6월	
GDP증가율(실질, 연율,%)	0.7	-2.6	1.9	2.2p)	-	-	-	-	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-	-	-	-	-	102.1	103.2	-	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1.0	-1.3	1.9	-	-	0.6	2.0	-	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0.4	-0.2	0.6	-	-	1.3	5.0	-	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3.6	0.9	-4.2	-	-	5.2	-7.8	-	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1.0	0.3	0.2	-	-	0.3	0.0	-
	전년비	1.0	0.9	0.9	-	-	0.9	0.8	-
실업률(%)	2.4	2.4	2.4	-	-	2.4	2.4	-	
수출액(조엔)	81.5	20.1	21.1	19.2		6.7	5.8	6.6	
수입액(조엔)	82.7	20.7	22.5	19.8		6.6	6.8	6.0	
무역수지(조엔)	-1.2	-0.6	-1.3	-0.6		1.0	-1.0	0.6	
경상수지(조엔)	19.0	5.6	2.6	-	-	1.7	1.6	-	
해외직접투자(조엔)*	64.2	13.7	15.0	-	-	4.2	3.5	-	
환율	달러	110.4	111.5	112.9	110.2		111.7	109.8	108.1
	원화(100엔)	996	1,007	999	1,021		1,022	1,076	1,088
금리(10년물,%)	0.071	0.098	0.076	0.023		-0.044	-0.064	-0.165	
주가(닛케이, 엔)	22,310	22,654	65,691	21,000		21,965	21,218	21,060	

주: p)는 개정치(2차 속보치) \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

4) 2019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8,931	3.5	-16.0	10,275	-0.7	15.0	59,976	-0.4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091	-3.9	-3.9	3,304	-7.9	6.9	18,469	-6.6
3	자동차부품	2,720	-11.8	-16.3	3,017	-14.1	10.9	18,067	-7.8
4	철강	2,714	-8.7	6.3	2,619	-11.6	-3.5	15,336	-10.0
5	원동기	2,039	-3.8	-25.4	2,371	-7.7	16.3	13,954	-3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5) 2019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미국	11,877	3.3	-15.8	13,555	4.8	14.1	78,118	5.2
2	중국	11,484	-9.7	-6.9	12,459	-10.1	8.5	70,301	-8.2
3	ASEAN	8,208	-17.5	-19.3	10,124	-6.7	23.3	57,191	-7.0
4	EU	6,474	-7.1	-18.9	7,403	-6.7	14.3	45,477	-1.4
5	한국	4,017	-13.3	-12.9	4,130	-14.8	2.8	26,087	-11.1
6	대만	3,476	-7.3	-6.8	3,954	-0.2	13.8	22,391	-2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6) 2019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7,538	10.6	-0.5	5,890	2.6	-21.9	40,102	-0.1
2	액화천연가스	3,021	-13.7	-3.6	2,742	4.6	-9.2	22,804	2.8
3	의약품	2,446	-11.4	7.1	2,647	4.4	8.2	14,915	2.0
4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138	-8.2	3.6	2,168	-4.3	1.4	12,699	-5.3
5	석탄	2,026	-13.9	-12.1	1,964	-5.3	-3.1	13,124	-0.2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7) 2019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5월			2019.6월			2019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5,401	-0.9	-0.7	13,772	-5.3	-10.6	90,793	0.1
2	ASEAN	9,580	-6.6	1.7	9,217	-6.2	-3.8	58,570	-3.2
3	EU	8,989	8.7	13.1	7,366	-3.7	-18.1	47,868	2.0
4	미국	7,927	-1.6	15.4	6,856	-2.5	-13.5	43,528	1.7
5	호주	3,943	-5.5	-3.0	3,513	-4.1	-10.9	24,885	5.1
7	한국	2,763	-5.2	3.7	2,512	-13.6	-9.1	16,228	-7.4

자료 : 일본 재무성